제11강 사랑의 신화 Ⅱ-에로스와 프쉬케, 제우스의 여인들

(1교시)

◆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

▲ 프쉬케

Psyche → 숨 (생명의 원리), 영혼, 나비

▶ 아름다운 프쉬케

어느 나라의 셋째 공주인 프쉬케의 뛰어난 미모에 반한 사람들이, 프쉬케의 미를 찬양하며 신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자, 이에 분노한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시켜 프쉬케로부터 아름다움을 빼앗아 오라고 시킴.

www.artnstudy.com

C. G. Kratzenstein-Stub, 1793-1860: Eros and Psyche. Photo ©Maicar Förlag-GML

잠든 프쉬케의 입술에 아름다움을 빼앗는 약을 떨어뜨린 에로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활을 꽂으려다
눈을 뜬 프쉬케를 보고 놀라 실수로 자기 손등에 활을 꽂게 되어 프쉬케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프쉬케가 추해지는 것을 보다 못한 에로스는 다시 아름다워지는 약을 프쉬케의 입에 넣어주어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올림포스 신궁에 올라온 에로스는 상사병에 걸리고 인간에게 신탁을 내리는 아폴론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아폴론은 프쉬케 꿈에 나타나,
'신의 뜻을 받기 위해 어느 날, 어느 골짜기 위에 서 있어라.' 는 신탁을 내린다.

(2교시)

www.artnstudy.com

아프로디테의 눈을 피해 땅 위에 신궁을 세운 에로스는 프쉬케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지만, 프쉬케는 자신을 애타게 찾을 부모님과 언니들을 걱정한다. 에로스의 허락으로 언니들을 신궁으로 초대한 프쉬케는, 질투에 사로잡힌 언니들이 불어넣은 불신 때문에 해가 진 이후에만 찾아오는 에로스를 의심하게 된다.

에로스는 자신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배신감에 사랑하는 프쉬케를 떠나게 된다.

프쉬케는 데메테르 신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데메테르는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둘을 맺어줄 것을 간청한다.
여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아프로디테는 할 수 없이,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둘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신전 창고에 있는 곡식 낱알을 모두 주워 담는 것, 천길 폭포수를 받아오는 것,
성질이 고약한 금빛양의 털을 뽑아 오는 것 등을 시험하였으나

www.artnstudy.com

신의 도움으로 프쉬케는 모두 통과하였다.
아프로디테는 마지막 시험으로 하데스의 페르세포네 여신의 '단장료'를 얻어오라 명한다.

A. Zick: Psyche and Charon, c. 1892. Photo ©Maicar Förlag-GML

▶ 하데스로 가는 프쉬케

▷ 아프로디테와 페르세포네. 아도니스

키프로스 섬의 파포스왕 키니라스를 사랑한, 그의 딸 미라는 잠든 아버지를 범한다.
분노한 아버지에 의해 미라는 죽임을 당하는데 그 곳에서 향나무가 자란다.
쪼개진 향나무에서 Adonis가 태어나자 아프로디테가 데려간다.

Nicolas-André Monsiau, 1754-1837: Birth of Adonis.
Photo © Maicar Förlag - GML

그리고 곧 아도니스를 페르세포네에게 맡긴다.
정성껏 아도니스를 키운 페르세포네와 아프로디테의,
아도니스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제우스가 중재하여,

www.artnstudy.com

각각 삼분의 일의 권리를 주고,
나머지는 아도니스 자유의사로 살게 한다.

▶ 사랑에 빠진 아프로디테와 아도니스

아프로디테가 케스토스 히마스까지 동원하여 아도니스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화가 난 페르세포네는 땅 속에서 멧돼지를 올려 아도니스를 죽인 후
영혼을 하데스로 데려온다. 그러자 그의 피가 떨어진 곳엔 아네모네 (바람꽃)가 피었다.

▶ 아도니스 죽음을 슬퍼하는 아프로디테

www.artnstudy.com

▶ 아도니스 피가 뿌려진 곳에서 나온 아네모네

아프로디테에게 감정의 앙금이 있는 페르세포네는 프쉬케에게 **'잠의 씨앗'**을 넣어 상자를 주며, 아프로디테에게 전해주고 그 전에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랜 여정으로 자신을 가꾸지 못했던 프쉬케는 곧 만나게 될 에로스에게 더 예뻐보이기 위해 단장료가 들어있다 믿은 상자를 열게 되고 영원한 잠에 빠진다.

▶ 잠의 씨앗이 든 상자를 열어 보는 프쉬케

▶ 에로스의 키스에 깨어나는 프쉬케

▶ 아프로디테에 의해 맺어지는 에로스와 프쉬케.
Volupta (기쁨) 라는 딸을 낳는다.

www.artnstudy.com

▶ 제우스로부터 영생을 선물 받은 프쉬케와 에로스

www.artnstudy.com

에로스와 프쉬케 신화 해석 가능성
■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하여 시련을 함께 극복하는 행위 ■ 완정한 사랑은 둘 모두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행위 ■ 에로스와 프쉬케의 사랑이야기는 이후 거의 모든 러브 스토리의 전형으로 간주됨.

(3교시)

◆ Zeus의 결혼과 Affairs

Mates	Offspring
신	
Metis	Athena(지혜)
Themis	Horae3(계절),Moirae3(운명),Astraea(별)
Mnemosyne	Mousai9
Hera	Hebe(청춘),Eileithya(출산),Ares(전쟁)
Leto	Apollon,Artemis
Demeter	Persephone
요정	
Maia	Hermes
Kallisto	Arkas
인간	
Alcmene	Heracles
Smele	Dionysos
Danae	Perseus
Pluto	Tantalos
Leda	Castor,Polydeuges,Helene
Lo	Epaphos
Electra	Corythus
Europa	Minos,Sarpedon,Rhadamant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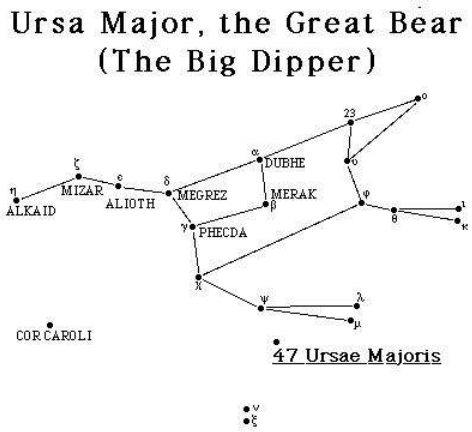
▲ 제우스와 헤라

www.artnstudy.com

헤라에게 반한 제우스는 포세이돈에게 올림포스 신궁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해달라 부탁하고 자신은 뻐꾸기로 변신하여 -최초의 변신- 헤라 여신의 창으로 들어감.
가이아 여신의 자애로움과 황금사과를 선물 받은 헤라는 비에 젖은 뻐꾸기를 품에 안게 됨.

▲ 제우스와 칼리스토

아르테미스로 변신하여 칼리스토를 유혹.
헤라가 칼리스토를 곰으로 만들자 그의 아들 아르카스가 그녀를 사냥하게 됨.
제우스가 아들 아르카스도 곰으로 만들어 별자리로 만듦.
헤라가 포세이돈에게 부탁해 바다에서 쉴 수 없게 만들어
사시사철 북극성 옆에 있는 붙박이별이 되었음.



▶ 아르테미스로 변신한 제우스와 칼리스토

▲ 제우스와 레다

스파르타 왕비인 레다를 백조로 변신하여 유혹한다.

www.artnstudy.com

제우스 + 레다 = 헬레네

▶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레다

▲ 제우스와 다나에

다나에 아버지는 외손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 두려워,
다나에를 왕궁에서 가장 높은 청동탑에 가둔다.
그러나 다나에는 황금 소나기 (황금빛 드라크마) 로 변신한 제우스와 사랑에 빠짐.

www.artnstudy.com

▶ 황금 소나기로 변신한 제우스와 다나에

제우스 사랑의 신화 해석 가능성
■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 특히 제우스의 어페어가 크게 부각되는 이유 → 신화적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나 Zeus가 문란한 성생활로 일관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오해. → 종(種)의 다양성과 혈통을 중시하는 유럽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심상, 특히 꿈의 심상은 신화의 기본이다.'

▶ 조지프 캠벨 (Joseph Campbell) 1904-1987
20세기 최고의 신화 해설가, 비교 신화학자.
→ 역사는 전설이 되고 전설은 신화가 된다.

www.artnstudy.com